

국제유가 급등은 투기자금 유입 탓

알 나아미, 상품시장이 금융시장과 상호 연결 ... 자원고갈 가능성 일축

<석유 대통령>으로 불리는 알리 빈 이브라힘 알-나이미(Ali bin Ibrahim Al-Naimi) 사우디 석유자원부 장관은 5월15일 “최근 국제유가 급등 현상은 수요-공급 법칙보다는 금융시장의 내부 논리와 더욱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가 수여하는 명예철학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은 알-나이미 장관은 5월15일 오후 4시 서울대 중강당에서 학위를 받은 후 서울대생 400여명을 대상으로 <세계석유공급 및 무역전망>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다.

알-나이미 장관은 1시간 가량 진행된 강연에서 “어디를 가든 현재 유가가 수요와 공급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혹은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받는다”며 “둘 다 가격 수준에 영향을 주고 또한 둘은 다르게 움직인다고 대답한다”고 말했다.

또 “여러 상품시장은 점점 더 금융시장과 상호 연결돼 있으며 최근 금융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해 석유 가격의 변동 폭이 커졌다”면서 “최근 유가 급등의 주요인은 금융시장의 내부 논리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생산 및 정제원가의 상승, 관련 인프라의 병목 현상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이 바이오연료와 같은 비싼 대체에너지 개발에 성급하게 나서는 현상 역시 세계적으로 유가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시장을 개발하는 것은 석유산업과 석유생산국의 직접적인 영향 범위 밖에 있어 특별히 석유생산국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역시 석유 및 가스제품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세계시장에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높은 국제유가가 석유수출국들에 일면 기회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석유가 유한하다는 점, 경제 다각화가 안됐다는 점, 세대간 불평등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 등은 우려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구촌 에너지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는 “1980년 세계 석유매장량은 6670억배럴 수준이었지만 7000억배럴을 소비한 현재 석유매장량은 당시 수준의 2배”라며 “지구촌 에너지 자원 고갈 가능성은 자원 비관론자들의 주장과는 크게 다르다”고 주장했다.

알-나이미 장관은 “수요가 증가하는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적으로 석유 및 가스 분야, 관련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우디도 막대한 투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나이미 장관은 사우디 동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12살 때 세계 최대의 석유기업인 Aramco에 사원으로 입사해 33년만에 비 왕족으로서는 최초로 이사에 올랐고 Aramco 이사장 겸 석유자원부 장관을 3차례나 연임하고 있는 입지전적 인물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5/16>